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풍경



정중순 군수 등 장흥군 공무원들이 지난 15일 장흥공설공원묘지에서 귀성 자제를 호소하며 향우들 대신 '추석 합동 성묘'를 지내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합동 성묘'

### 공설공원묘지서 마쳐...정중순 군수 "고향 방문 자제" 호소

'추석 이동 멈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흥군이 귀성 자제를 호소하며 '합동 성묘'를 했다. 지난 15일 장흥공설공원묘지에서 지낸 '합동 성묘'에는 정중순 군수, 유상호 군의회 의장,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한 정부 방침을 따라 성묘에 나서지 못한 향우들의 마음을 달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합동 성묘에 앞서 장흥공설공원묘지 6858기

에 대한 별초를 시행했다. 장흥군은 출향 향우와 공설공원묘지 유족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정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향우들을 대신해 군 차원에서 합동 성묘를 진행했다"며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보성군 '합동 차례'

### 차엑스포 무대 19일 생중계...다양한 茶禮문화 조명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출향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해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에 '명절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차례는 오는 19일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홈페이지 방송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송출하고 일반인이 보기 편하게 편집해 추석날인 10월 1일 오전 9시 보성군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다. 보성세계차엑스포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합동 차례'는 보성향교 유도회에서 주관한다. 녹차수도에 걸맞게 차례상에 차를 올리며 차례의 기원과 의미를 되짚어 본다.

또 다양한 차례의 모습을 시연하며 차와 술을 올리는 차례, 차만 올리는 차례, 도시에서 간편하게 지낼 수 있는 차례 등 사례별로 차례 지내는 법과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17일부터 20일까지 보성세계차엑스포 유튜브 채널 구독과 댓글을 달고, 엑스포 공식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차 올리기를 신청(선착순 1000명)하면 차례상에 올릴 보성녹차(20g)와 보성쌀(500g)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선물은 22일부터 발송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에 '바람길 숲' 만든다

### 시, 200억 투입 4개 테마숲 조성 미세먼지·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에 '도시 바람길 숲' (조감도)을 조성한다. 혁신도시 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4개 테마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생활권의 열섬현상, 미세먼지·악취 등 대기환경 문제를 대규모 녹지 테마 공간 조성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숲길을 통해 발생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시 내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폭염을 유발하는 열 공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SOC사업의 하나로 나주시가 지난해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4개 테마 숲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악취 완화를 위한 '공해차단 숲' ▲배메산·호수공원 일대 환경에 특화된 '디딤 확산 숲'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보완 식재하는 '순환가로연결 숲'

■ '도시 바람길 숲' 4개 테마 숲

공해차단 숲	디딤 확산 숲	순환가로연결 숲	바람연결 숲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악취 완화	배메산·호수공원 일대 환경 특화	교통량 많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완 식재	배메산으로 연결되는 녹지 공간 조성



▲배메산으로 연결되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바람연결 숲' 등으로 구성됐다.

이 숲은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성산 일원의 '국립 나주숲체원'과 함께 나주시의 대표적 산림정책 프로젝트 '사람 중심 그린인프라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삶과 쉽이 있는 공원, 운치와 멋을 더하는 조경,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림보호, 도시와 숲을

이어주는 빛가람 공원녹지 등 5대 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바람길 숲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산업화로 야기되는 사회·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나주시 그린인프라의 대표 모델"이라며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애들아! '집콕 캠핑' 떠나자



###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대상 텐트 등 용품 배부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한부모가족 20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집콕 캠핑'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센터는 가족 간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자 '집콕 캠핑'을 마련했다.

집안이나 옥상, 마당 등에서 텐트, 가랜드, 꼬마전구로 집안을 캠핑장으로 꾸미는 한편 캠핑 음식 세트 등 캠핑 키트를 배부했다.

외출 및 여행 자제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 양육돌봄의 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실시했다.

조성숙 센터장은 "가족 내 돌봄, 가사 분담 등 가족 역할에 대한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담양군, 안심식당 확대 지정 음식 덜어먹기·수저 위생관리 등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등 전염병에 취약한 오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외식기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식당이다.

담양군이 지금까지 지정한 안심식당은 총 40곳이다.

안심식당의 3대 실천과제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다. 또 개인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용 접시와 집게, 국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위해 수저를 미리 비치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하거나 개별 포장해야 한다.

담양군은 안심식당에 지정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생물품과 소독용품을 지원한다. 3대 실천과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은 지정이 취소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안심식당 확대 지정과 이행 상황의 수시점검을 통해 외식의 불안감을 덜고 소비 촉진으로 도모해 업주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